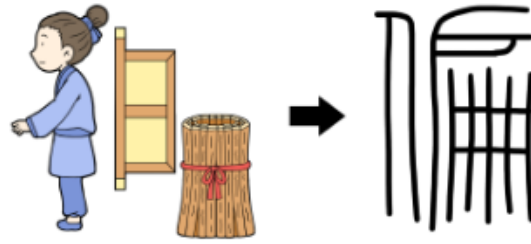


3(2)
-
451

회의문자①



偏

치우칠
편

偏자는 '치우치다'나 '쏠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偏자는 人(사람 인)자와 扁(넓적할 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扁자는 널빤지에 글이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걸어 놓는 편액(扁額)을 그린 것이다. 偏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戶字이다. 戶자는 외닫이 문을 그린 것인데, 偏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열리고 닫히는 문을 그린 戶자를 응용해 사람의 마음이나 언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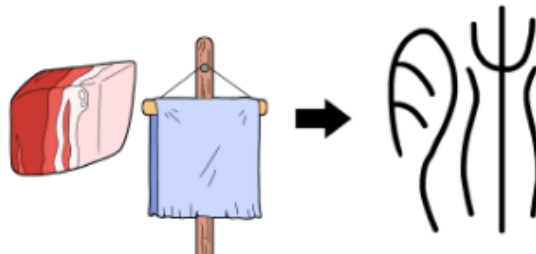
소전

偏

해서

3(2)
-
452

회의문자①



肺

허파 폐:

肺자는 '허파'나 '속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肺자는 月(육달 월)자와 市(저자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市자는 '시장'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그런데 소전에 나온 肺자를 보면 肉(고기 육)자 옆으로 무언가가 감싸져 있는 듯한 肺 모습이라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그려졌던 市(저자 시)자와는 市 다르다. 그러니 소전에서 의 肺자는 사람의 신체와 비슷한 모습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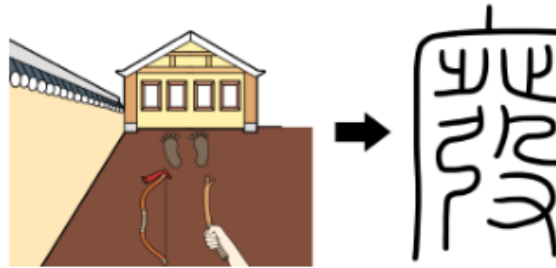
소전

肺

해서

3(2)
-
453

회의문자①



廢

폐할/버릴 폐:

廢자는 '폐하다'나 '못쓰게 되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廢자는 戶(집 엄)자와 發(쓸 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發자는 활과 몽둥이를 들고 발자국을 쫓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번 쏜 화살은 재사용이 안 됐던 것일까? 廢자는 화살을 쓰는 모습을 그린 發자에 戶자를 결합해 집안에 낡거나 망가진 것을 버린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기 때문이다.

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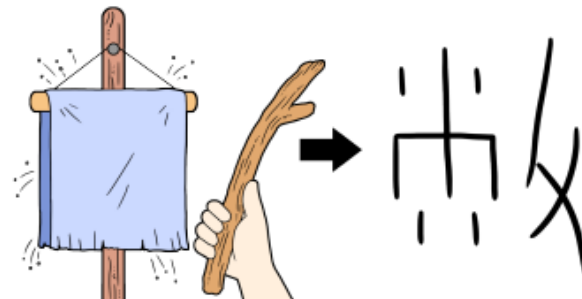
소전

廢

해서

3(2)
-
454

회의문자①



弊

폐단/해질 폐:

弊자는 '폐단'이나 '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弊자는 汙(받들 공)자와 敝(해질 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敝자는 막대기에 걸어놓은 천을 몽둥이로 두드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敝자의 갑골문을 보면 막대기에 걸린 천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敝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천을 너무 오래 두드리면 낡고 해지게 된다. 그래서 敝자는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면 낡고 해진다는 의미에서 '폐단'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卩(폴 초)자가 敝 더해지면서 '낡은 것이 싹트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되었지만 소전에서는 卩자가 汙자로 잘못 바뀌면서 지금의 弊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敝

갑골문

弊

금문

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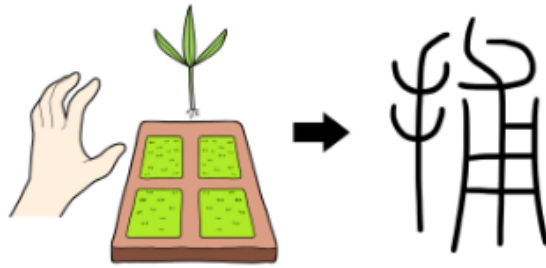
소전

弊

해서

3(2)
-
455

형성문자①



捕

잡을 포:

捕자는 '잡다'나 '불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捕자는 手(손 수)자와 甫(클 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甫자는 논밭에 초목이 크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보→포'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捕자는 '불잡다'라는 뜻을 위해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글자이다. 捕자에서 말하는 '불잡다'의 대상은 도망친 죄수를 뜻한다. 그래서 捕자는 주로 죄수를 사로잡는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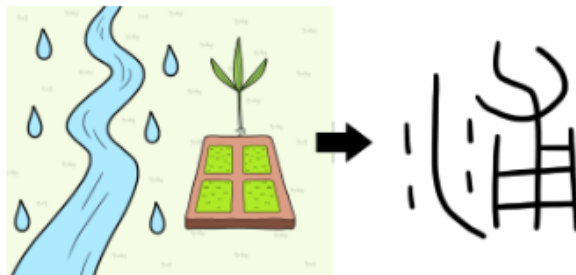
소전

捕

해서

3(2)
-
456

형성문자①



浦

개[水邊]
포

浦자는 '물가'나 '바닷가'를 뜻하는 글자이다. 浦자는 水(물 수)자와 甫(클 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甫자는 밭에 초목이 올라온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보→포'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浦자는 '물가'나 '바닷가'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지류가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뜻한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에 근접해 있는 장소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포항시(浦項市)나 군포시(軍浦市)의 지명에 浦자가 쓰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浦자는 일부 지명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浦

소전

浦

해서

3(2)
-
457

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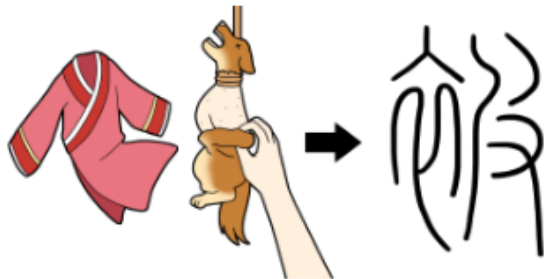
단풍 풍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木(목 ➡ 나무)部和 음(音)을 나타내는 風(풍)이 합(합)하여 이루어짐.

3(2)
-
458

회의문자①



被

입을 피:

被자는 '씌우다'나 '덮다', '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被자는 衣(옷 의)자와 皮(가죽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皮자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죽'이나 '겉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被자는 이렇게 '겉면'이라는 뜻을 가진 皮자에 衣자를 결합한 것으로 겉에 덮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이불'을 뜻하게 되었다. 이불은 내 몸을 덮는 침구이기 때문에 '씌우다'나 '덮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불을 '被子(bèizi)'라고 한다.

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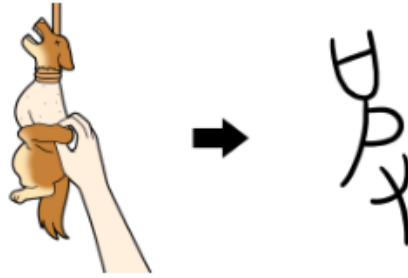
소전

被

해서

3(2)
-
459

상형문자 ①



皮

가죽 피

皮자는 '가죽'이나 '껍질', '표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皮자는 동물의 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皮자가 가죽을 뜻하는 革(가죽 혁)자와 다른 점은 갓 잡은 동물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皮자와 결합하는 글자들은 대부분이 '껍질'이나 '표면', '가죽'과 같은 '겉면'을 뜻하게 된다. 상용한자에서는 부수로 쓰인 글자는 없지만 波(물결 파)자나 被(입을 피)자처럼 부수가 아닌 글자에서는 많이 등장한다.

𠩺

금문

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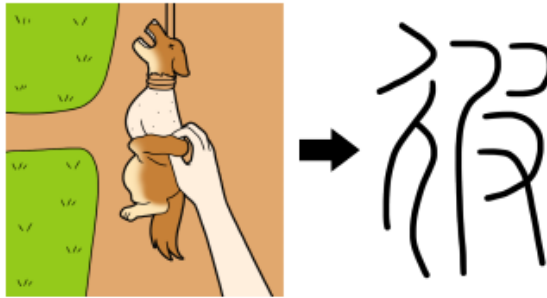
소전

皮

해서

3(2)
-
460

회의문자 ①



彼

저 피:

彼자는 '저'나 '저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彼자는 𠩺(조금 걸을 척)자와 皮(가죽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皮자는 동물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죽'이나 '겉'이라는 뜻이 있다. 彼자는 본래 '길 바깥쪽으로 건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겉'이라는 뜻을 가진 皮자에 𠩺자를 결합해 '길 바깥쪽'이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彼자는 '저'나 '저쪽', '그'와 같이 바깥쪽이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𠩺

소전

彼

해서